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34:9-17
2026년 4월 19일 오전 11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 주역 도우소서 >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장손, 이삭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가장 유리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에서의 후손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 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 세이고, 에서의 나이는 15 세였습니다. 이삭이 60 세에 에서를 낳았기 때문에 에서는 15 년 동안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따라서 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고 무려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고 이삭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이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창 26:34).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 부인을 둘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여러 명의 여자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만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말 2:15 상반절).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1.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한 삶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 2:16). 하나님께서는 동성 결혼 뿐 아니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특히 조강지처가 싫어져서 학대하고 거짓을 꾸며 내쫓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중 힐렐 학파는 아무 이유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혼 문제는 종교적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 19:6).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현대 에서는 두 명의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무지함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에서같은 사람은 가증한 자로 선한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두 명의

부인을 돕으로써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에돔도 하나님을 전혀 모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 그모스나 암몬의 신 몰렉처럼 대표적인 우상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니다. 에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삼상 21:7). 에돔 사람 도엑은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도엑은 제사장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삼상 22:18). 에돔 사람 도엑은 제사장 85 명을 죽였습니다.

나아가 제사장들의 가족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젓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삼상 22:19). 이것은 에돔 사람 도엑이 단순히 왕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사울 왕도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였지 제사장들의 젓먹이까지 학살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 에돔 사람 도엑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사울에게 과잉 충성을 하였습니다. 에돔 사람 도엑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함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에돔이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에돔은 왕국을 이루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창 36:31). 이스라엘은 사무엘상에 가서야 왕이 등장하는데, 에돔은 창세기 때부터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 산으로 대표되는 에돔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덕분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신 2:5).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국제 도로인 ‘왕의 대로’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은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여행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와 관세 수입이 막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번영을 누렸습니다.

2. 형제를 거절한 에돔의 죄

에돔이 번성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에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돔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 번영하고 있었던 반면, 야곱은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때문입니다. 에돔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학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민 20:14). 에돔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였음을 에돔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민 20:16). 그리고 에돔 땅의 통과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민 20:17). ‘왕의 큰길’은 왕의 대로(King’s Highway)입니다. 왕의 대로는 지금까지도 주요 간선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큰길입니다.

모세는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겠다고 말하였지만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민 20:18). 에돔 왕은 이유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화롭게 지나가고 비용도 지불하겠으니 이용을 허락해 달라고 재차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라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민 20:19). 이러한 형제 이스라엘의 간곡한 요청에 에돔 왕은 칼을 겨누며 달려 들었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민 20:20).

여러분, 형제입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할 때 칼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에돔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홀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노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아모스 1:11).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에게 공홀을 베풀지 않고 칼로 쫓아낸 것은 야곱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압복강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 에돔은 형제 사이의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암 1:12). 에돔의 남부 지역인 데만과 에돔의 수도 보스라는 모두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주요 지점입니다. 그곳에 불을 보내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사 34:11). 당아새는 펠리컨입니다. 날짐승인 당아새와 부엉이와 까마귀 그리고 길짐승인 고슴도치가 에돔 땅에 살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에돔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도 없고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르러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12 절). 궁궐마다 가시나무가 돋을 것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13 절). 새 품은 췌기풀입니다. 에돔의 견고한 성에는 췌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하고, 승냥이가 득실거리며 타조들이 놀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돔의 땅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짐승과 날짐승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여서 술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14-15 절). 그리고 그 짐승들의 이름이 ‘여호와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16 절).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에돔 땅으로 몰려 온 것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듯이 에돔 땅은 짐승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17 절).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에돔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었을 것입니다. 에돔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입니다. 험준한 세일 산이라는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고, 페트라 지역과 같이 외부 침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에돔은 왕의 대로를 장악하고 국제 교역 중심지로 부유하고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람이 안 살고 짐승들이 산다는 것은 거의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돔은 점점 쇠퇴하였고 결국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와 에돔의 지혜로 유명했던 데만은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땅이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삶의 끝은 반드시 황폐함으로 끝납니다. 에서와 에돔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쉽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월요일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돔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